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진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보성군,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

보성군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읍면 현장점검에 나섰다.

점검단은 유현호 부군수를 단장으로 각 실과장을 읍면 점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이·미용업, 경비·정소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5대 업종 위주로 실시했다.

유현호 부군수는 지난 17일에는 별교읍을 직접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상황 및 홍보사항 등을 점검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군수 단장·실과소장 점검책임관으로 지정 음식점업·숙박업·소매업 등 5대 업종 위주



부했다.

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실태 및 안정자금 인지도, 개선의견 등 체크리스트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안정자금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해 연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여 읍면에 안정자금 접수창구 설치 후 각종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유현호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업무협조 및 읍·면계장 40여명을 대상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해 부서간 협력을 통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고흥군, 미래농업대학 교육생 모집

근층자원반 개설 총 50명 모집...내달 9일까지

고흥군은 전문 농업인 양성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달 9일까지 고흥미래농업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

군은 친환경농업대학이 2016년 전남 최초로 '근층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근층산업 발전과 전문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근층자원반'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근층자원반'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20회, 100시간 이상의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 근층사육실습 등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에 총 50명을 모집하며 대상은 고흥군 농업인 또는 인근 시·군 농업인으로 여성 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을 우선 선발한다.

입학원서는 고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교부받아 가까운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흥미래농업대학은 고흥농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있다"며 "관심 있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채무본부장



신안군, 모자반 피해 최소화해 총력다한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등 배정

신안군이 지난 9일부터 불어닥친 강풍으로 전 해역에 유입된 모자반과 지속적으로 밀려든 모자반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신안군 전역에 유입된 모자반은 1,700여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및 해안가에 유입된 모자반은 전해의 관광지를 오염시키고, 김양식 시설 등에 부착함으로써 김 채취시 사전 제거작업으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고스란히 어가피해 및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신안군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등 예산 7억 8천 5백만원을 읍면에 긴급 배정하여 해안가에 유입된 모자반 및 양식장에 부착된 모자반을 수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등 빠른 대처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모자반 발생원인, 경로 등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규명하고 이번 모자반 유입으로 발생한 양식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농업 재해대책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안군에서는 지난 2015년도에 1,800여톤의 모자반이 유입되어 17억의 예산을 투입해 처리한 바 있다.

함평군, 올해 유기질비료 20,665톤 공급 지원

총 5종 1포대당 1400원~2900원 지원

함평군은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22억 3천2백만 원을 투입하여 4,082농가에 유기질비료 20,665톤(1,083,205포/20kg)을 공급한다.

지원 비종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으로 1포대(20kg)당 1400원에서 2,900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함평군은 타 시군과 달리 군비 정액의무 부담금 600원 외에도 양질의 퇴비는 비종과 등급에 따라 최고 1,000원까지 추가 부담하여 농가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군은 지난 3일, 농협·농민대표

가 참여하는 공급관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농가별 신청물량, 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물량을 확정·통보했다.군은 농가들이 영농기 이전에 비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에 조기 공급 협조를 구하는 한편, 농가에게는 비료가 도로변 등에 방치 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살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장성군,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교육' 운영



장성군이 농업과 e-비즈니스 산업을 연결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월부터 정보화능력을 갖춘 사이버농업인 육성을 위한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이에 참여할 농업인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교육'은 1년 과정으로 총 12회에 걸쳐 진

행되고, 농업인에게 스마트경영과 전자상거래, SNS마케팅 전략방안 등을 알려주는 정보화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전문코칭기관의 코칭을 받아 1교육생-1스토어팜(쇼핑몰)을 실제 개설하는 실습과정을 운영하고 e-비즈니스 선동농가 방문하는 벤치마킹을 통해 성공적인 온라인 마케팅 방법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장성군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판매할 상품 키워드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직접 판매상품의 사진을 촬영하고

스토어팜에 상품을 등록하기까지 단계별 내용을 1대 1코칭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관심있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있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61-390-8415)를 통해 내달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유우석 장성군수는 "농업인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농산물 유통 시장 흐름에 따라가기보다 선도한다는 마음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보화 교육을 통해 e-비즈니스 운영 능력을 키우고 농가소득을 늘려가는 좋은 방법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영광군, 드림스타트 겨울방학 프로그램 진행

보드게임·경제교육·창의로봇 등 3개 프로그램 운영

영광군은 학생들의 방학을 맞아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여가 선용과 학습 증진을 위해 다양한 겨울방학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보드게임, 경제교육, 창의로봇 등 3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창의력,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해소시키고자 마련됐다.

보드게임교실은 다양한 보드게임 교구를 활용하여 학습 흥미를 높여 주고 창의력, 집중력, 수리능력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경제교육은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여 돈의 개념과 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했다. 창의

로봇 교실은 로봇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창의력 사고 및 과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업에 참여한 아동은 "방학에 집에 있는 것보다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방학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아동들에게 건강 보육 복지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2018년에는 위기가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등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이끌어 왔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주도해 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